

문화수도 광주의 '인큐베이터'

문화콘텐츠기술원 좌초 위기

정부, 문화산업 관련 기관 통·폐합 추진

정부가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에 대해 축소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어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인 문화콘텐츠기술원(CT 연구원) 설립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관련기사 3면〉
CT 연구원은 문화전당의 취약한 문화산업, 기술·연구기능을 보강하는 기관으로, 광주문화수도 조성 사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인큐베이터'다.

20일 곡성 출신 한나라당 이정현(비례대표)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올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문화산업 관련 기

관 통·폐합을 골자로 한 콘텐츠 산업 진흥체계 개편 사업에 CT연구원 기능 재조정을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현재 사실상 CT연구원 광주 설립을 배제하는 내용의 'CT연구원 설립에 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용역은 비용, 편익 분석을 근거로 설립 예정지를 물색하고 타당성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타 지자체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낙후한 광주시가 설립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대구 등에서

도 CT연구원 유치 작업을 은밀히 진행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에 못박은 'CT연구원을 광주에 설립한다'는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함으로써 광주 문화수도가 아시아문화전당 뿐인 빈껍데기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

CT연구원은 ▲문화산업 원천기술 개발 및 지원 ▲디지털콘텐츠 기술개발 중심의 문화기술 연구 ▲문화콘텐츠 자원 개발 중심 기능을 담당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중추기관으로, 문화산업에 미치는 직·간접 파급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문화 중심도시 프로젝트

차질 없는 이행(2007년 10월22일) ▲호남권 8대 프로젝트로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개발 약속(2007년 12월3일) ▲세계문화상품단지 조성(대통령 공약집) 등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과도 정면 배치돼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정현 의원은 "CT연구원 설립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가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새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핵심기관인 CT연구원의 광주 설립을 재확인 하고 실천하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태풍 갈매기 피항 ... 목포항 어선 '복적'



20일 오후 태풍을 피해 정박한 선박으로 가득찬 목포항. 제7호 태풍 '갈매기'의 영향으로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목포항 운항관리실은 모든 선박에 대해 운항을 통제했다. >관련기사 7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독도 유인도화' 관광상품 개발

黨政 적극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독도 수호를 위해 해저광물조사단 구성과 활동, 국민의 독도 접근권 보장, 해양호텔 건립을 비롯한 독도관광 상품개발 등 '독도 유인도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당정은 또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대책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정부 중심의 대북정보 수집라인을 재구축키로 하고 개성관광에 대해서는 관광개척 신변안전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관에서 박희태 대표와 한승수 총리 등 당·정·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차병진 대변인이 전했다.

차 대변인은 "당정은 향후 독도 대책의 기본방향을 실질적 지배로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는 독도 문제를 놓고 한일간 분쟁관계를 전면화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독도 유인도화" 대책에는 독도종합해양기지 건립과 독도 정주마을 및 독도사랑체험장 조성, 수도권 '독도 박물관' 건립, '안동북 장군 기념관' 건립, 서도의 어업인 육성 조성 등 정부측이 마련한 방안도 포함되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관련, 향후 대북정보 수집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한미간 원활한 정보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그동안 현대자산 등 민간기업에 의존한 데서 벗어나 정부 주도로 대북정보 수집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이날 독도를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제출했다.

/연합스

"국세 과감하게 지방세로 전환"

김형오 국회의장, 지방신문협 공동인터뷰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파문과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관련기사 4면〉
김 의장은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의장에서 이뤄진 광주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와의 첫 공동인터뷰에서 "감정적인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에 도전하는 일본의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가 대마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주장한다면 뭐라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을 망각한 것은 물론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덩치 값도 못한다"고 비난했다.

김 의장은 또,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대해 "무조건 북한이 진술한 사과를 해야 한다"며 "(북한의)최고위정자가 (총격)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위정자가 사안의 책임을 지는 것이 순리이다"고 거듭 사과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에서 '지방이 없다'는 지적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일정부분 맞다"며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시켜 지방 재정을 확충시켜야 한다. 돈이 돌아야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고 지방도 산다"고 주장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 김 의장은 "정치적 변수의 영향력에 벗어나려면 18대 국회 전반기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임동욱기자 taim@kwangju.co.kr

社告

제28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25일(금) 오후 2시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양규호 소아치과 교수 '어린이 주걱턱의 치료'

광주일보사와 전남대병원은 오는 25일(금) '제28회 테마가 있는 시민건강강좌'를 개최합니다. 시민강좌는 전남대병원 전문 의료진이 직접 강연하고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게 합니다.

이번 강좌는 '어린이 주걱턱의 치료'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강사는 양규호 소아치과 교수로 성장기 어린이의 주걱턱 진단 과정과 치료법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강좌 내용은 오는 29일(화) 광주일보에 게재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주 제 : 어린이 주걱턱의 치료
- 강 사 : 양규호 전남대병원 소아치과 교수



서울대 치과대학 졸업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치대 방문 교수
-대한소아치과학회 고문
-전남대병원 소아치과 교수

- 일 시 : 7월 25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 문 의 : 전남대병원 홍보실 (062)222-5092
교육연구실 (062)220-6082

光州日報社·전남대병원

광주용봉2 Humansia 5년임대 입주자 모집

신방집수 2008년 8월 4일 - 6일
방문상담 8111 2652
11211 6602, 11211 1962
전문의 7월 19일 개관(사립지구내)
임대문의 24시간 24시간 24시간 24시간
도시개발사업팀 380-0668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국립전남대학교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루벤스, 바로크 걸작전
Rubens, Baroque Masterpieces
2008.7.16 ▶ 11.9
광주시립미술관

'플란다스의 개' 도판 5점
루벤스가 그려낸 광주에 찾아옵니다.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광주광역시립미술관
광주광역시립미술관